

최근 몇 년간 우리 사회에도 기부와 봉사가 일 반화되고 있다. 학교는 봉사활동을 의무화하고 성적에 반영하기도 한다. 재단이 발생하면 군인과 종교단체는 어김없이 나타난다. 인력 동원이 용이한 집단들이기 때문일 것이다.

재화의 기부와 용역의 봉사는 사회가 복잡해 지고 자본주의적 분배양식에 문제가 발생하면서 등장한 제3부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이는 행정적, 관료적 시스템 밖에 있는 자발성에 기반 한 도덕적 활동이다. 이를 제도화, 체계화하려는 시도는 기부는 조세가 되고, 봉사는 강제노역이 되고, 이를테면 복지행정 관료의 수와 복지의 수혜자 수가 맞먹는 복지의 비대를 낳는다. 그러므로 이는 체제와 효율성으로 짚 수 없는 자율성의 영역이다.

절대 왕권이 지배하던 시대에는 오직 관료 집단만이, 시장이 낙후되어 있고 관료제에 이외에 어떤 합리적인 조직도 없는 사회에서는 군대가,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사회에서는 기업이 가장 큰 역동성을 갖는 집단이 된다.

기업은 관료제에 비해 지식 엘리트의 순환이 빠르기 때문에, 가장 진보적이고 친취적인 집단이다. 정보수집 능력, 단기적 미래 예측 기술, 비용효율 분석 기술의 측면에서 기업을 능가하



불자 세상보기
구승희
독일 레겐스부르크 교환교수

기업의 새 코드 '봉사'

는 집단이 없다. 이런 엘리트 집단인 기업은 지금껏 이윤과 효율성의 극대화라는 원초적인 목표에만 주목한 나머지, 심지어는 이웃의 가난, 대규모 자연재해, 국가적인 위기마저도 '또 하나의 시장'으로 인식해 왔다. 마치 개혁에는 관심이 없고, '개혁'이라는 아우라를 이벤트 상품화하는 굿즈처럼 이리떼들처럼.

오늘날 환경문제, 정보화, 세계화는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을 바꾸고 있다. 변화된 생산양식 하에서 기업의 목표는 이윤의 최대화가 아닌 사회적 화에 맞춰진다.

적정 이윤이라는 의미, 즉 효율성, 생산성에 기초한 최적화가 아니라, 기업의 역동성을 지역 사회에 풀어냄으로써 경직성을 탈피하고, 다양성, 유연성을 통한 기업 가치의 최적화를 말한다. 기업의 지역사회 봉사는 참여의 문화를 만들고, 이는 다원주의적 기업문화로 이어져 변화무쌍한 시장 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좋은 요소가 된다.

생신력의 일부로 지역사회에 투자하는 가장 유력한 분야는 지역 환경봉사일 것이다. 환경문제는 계층과 지역을 초월한 보편적인 관심사이

고, 기업 활동은 반환경적이라는 적대적 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역사회 환경봉사는 이런 대립 구도를 불식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로써 기업이 친환경적인 소비 패턴을 기업 활동에 수동적으로 반영하는 차원이 아니라, 지역의 생활환경에 직접 참여해서 친환경적인 생산-소비 관계를 정립하는 '21세기형 기업 모델'을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기업의 사회봉사는 계몽적 성격의 시민운동, 혹은 예를 들어 '녹색 소비주의'를 홍보함으로써 '친환경기업'이라는 이미지를 광고하는 차원이어서는 안된다. 기업의 서비스를 수혜 받는 현명한 소비자는 몸종으로 신분을 끄려는 시도처럼 무의미하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이다.

기업의 지역봉사는 이윤추구 활동도, 대외 이미지 제고를 위한 활동도, 지역사회에 시혜를 베푸는 것도 아니다. 이는 업의 내부 역량 강화를 위한 수단으로서, 판매실적, 이해능력과 동일한 직무능력을 평가하는 요소로 이해할 때, 타인을 위한 봉사 그 자체가 지향하는 나눔의 문화가 정착될 것이다.

본란(本欄)의 내용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불자의 눈

논설위원 기명사설

무소유를 근본정신으로 하는 출가 승단이 재산을 지니게 된 것은 동북아시아의 경제적 특성에 비추어 불가피한 일이었을 수도 있다. 출가 공동체의 정체로서만 인정하고, 스님들이 사암 등을 소유하는 것을 제한하는 선에서 무소유의 근본정신을 최대한 지키는 타협점을 찾은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하지만 청정승가승단을 표방하고 있는 조계종의 스님이 개인의 사암을 소유한다면, 그 중지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여타의 승단에서 여러 안전장치를 만들고, 또 긴 세월을 걸쳐 폐해를 줄이는 방안을 강구한 바탕 위에서 소유를 인정하는 것과는 다른 근본적인 정체성의 위기를 낳을 것이며, 그 폐해 또한 비교할 수 없이 크다 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계종 소속의 많은 스님들이 개인의 사암을 소유하고 있으며, 심지어 중앙종무기구의 요직에 있는 상당수의 스님들까지도 그러하다 한다. 이는 조계종의 정체성과 청정성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게 하는 부끄러운 모습이 아닐 수 없다.

사실사암과 조계종 정체성

물론 사실사암을 무조건 철폐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이런 모습을 보이게 된 이유도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청건의 뜻이 지켜져 갈 수 있게 하는 제도적 장치가 아직 미흡할 수도 있고, 노후의 복지에 대한 보장이 없기에 사적인 사암과 신도를 통해 그것을 도모해야 한다는 이유도 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사실사암에 대한 면죄부를 주는 것은 아니다. 제도적 보완을 꾸준히 계속해 나가야 하지만, 그런 것들 구실로 삼아 사실사암을 유지하려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일이다. 사실 사암이 있기에 오히려 모든 스님들이 무소유의 청정성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 종단의 제도적 개혁이 늦춰지고 있다고 보는 것이 올바른 시각이다.

조계종단은 청정 출가승단의 위상을 분명히 하여 사실사암의 종단 등록을 위한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만 한다. 아울러 사실사암에 의존하지 않고도 스님들이 수행과 포교에만 평생을 바칠 수 있게끔 하는 제도를 하루빨리 수립해야 한다. 두 가지의 별개의 일이 아니지만, 사실사암의 종단등록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후자의 일도 바르게 시작될 수 없다는 인식 아래 종단의 역량을 기울여야만 할 것이다.

■ 성태홍(건국대 교수)

'연대' 민명

심민섭



이렇게 좋은 집, 한번 지어보자



이렇게 들었다

과거사 청산

목숨은 죽음을 피할 수 없고, 만난 사람은 헤어지는 괴로움이 있느니라. 수행하는 사람이 계행을 지키지 않고 삼매를 뒤지 않으며, 지혜를 얻지 못하고, 해탈을 이르지 못하면 윤회의 길을 벗어날 수 없느니라. <중일야합경>

"아이고, 우리 아무게 불쌍해서 어찌나..." 인척 동생이 갑작스런 사고사를 당해 찾아간 영안실. 분향소를 찾은 사람들이 한바탕 울음을 쏟으며 뺨놓지 않고 하는 말이 이 말이다. 한동안 영안실에 앉아 있으니 동생의 죽음만 안타깝고 애절한 게 아니었다. 나이의 신분을 떠나 누구의 죽음이든 죽음은 언제나 못다 이룬 한을 남기고, 살아남은 사람들의 슬픔은 그래서 더욱 커진다.

서러운 눈물이 넘쳐나는 영안실에 앉아 우리네 삶을 생각해 본다.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 죽을 뒤의 자취들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과거사 청산을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정치권의 공방을 지켜보며 삶과 죽음, 그 뒤에 남겨지는 흔적을 여실히 관찰한다. 친일 경력에 이어 항일, 반공 재조명 등으로 과거사 문제가 또 다시 불거지고 있다. 그러나 과거사 규명은 현재를 바로 세우기 위한 처방에 불과하다. 어떤 역사학자는 과거와 현재가 싸우면 미래가 위험하다고 했다.

영원히 묻히는 과오는 없다. 앞서 살다가 이들이 남긴 단적인 삶의 이력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행한 만큼, 한 치의 오차도 없이 다가오는 현재를 맞이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엄중하게 다가오는 '현재'에서 과거를 넘어 미래를 여는 열쇠를 찾아야 함을 일깨우는 교훈이다.

지금 여기에서 '여한 없이' '부끄럼 없이' 살다 돌아갈 일이다. 영안실에 앉아 언젠가 한번은 맞이해야 할 죽음과 끝없이 윤회하는 인간사의 비애를 절감한 후, 더욱 엄중한 삶을 다짐한다. ■ 천미희(부산주재 기자)

독자의 소리-이렇게 생각한다

'웰빙사찰'이 대안이다

사람이 종합적인 문화공간으로 자리잡아야 한다는 내용의 기사를 많이 읽었다. 일주일에 3-4차례 절에 가는 입장에서 참 공감하는 부분이 많았다. 기도나 상담, 봉사, 합장단 외에는 사찰에서 누릴 수 있는 문화적 혜택이란 거의 없기 때문이다.

요즘 우리 사회는 성장 중심의 사회구조에서 분배 중심의 구조로 변화를 겪고 있다. '웰빙'이라는 말이 사람들의 입바에 오르내리는 것도 이런 변화를 반영한다. 주말이나 시간이 날 때면 더 풍요로운 생활을 위해 뭔가를 찾아 나선다. 휴양지를 찾는 이도 있고, 극장이나 쇼펄름, 공원에는 사람들이 가득하다.

그러나 사찰은 어떤가. 참으로 썰렁하다. 뭔가를 찾아나서는 이들의 발길을 잡지 못한다는 반증일 것이다. 한번만 더 생각해본다면 사찰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절감하게 된다.

외래문화의 범람 속에서 우리 민족의 삶과 생활에 배어있었던 불교는 희미해져 오간다. 자주 사찰에 가는 불자가 아니라 불교와 사찰은 그들만의 생활일 뿐이다.

따라서 무언가를 찾아나서는 이들을 사찰로 불러들이기 위해서는 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해야 한다. 이것이 건물을 대형으로 짓는 불사보다 중요하다. 인적 없는 사찰이 무슨 소용이 있단 말인가. 사찰도 이제 '웰빙'이어야 한다. 꽃꽂이, 한지공

예, 사찰음식, 비즈공예 등 각종 문화강좌가 필요한 이유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의 삶이 보다 풍요롭고 행복하길 바란다. 사찰이 그런 바람을 충족시켜주는 공간으로 거듭나길 기대한다. 공소희(대전시 서구 도마동)

수계·지계는 수행자의 기본

9월 3일에 있을 선운산의 주제가 '수행과 계율'이라는 <현대불교> 기사를 읽었다. 계율이란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기 위해 반드시 지켜져야 할 약속이다.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실 때 불법을 스승으로 삼고 공부하라고 하셨다. 비구 스님은 250계, 비구니 스님은 348계를 지켜야 하는 데, 이는 숫자의 의미보다 그만큼 청정한 구도자의 길을 걸으라는 당부일 것이다.

해인율원장 혜능 스님의 말처럼 현대 사회가 번잡해 수행환경이 좋지 않다는 것은 충분히 납득할 수 있다. 그러나 계율을 충실히 지켜나가는 재가불자들도 많다는 사실을 상기할 때, 스님들이 수행환경 때문에 흔들려서는 안된다.

"수계가 지계생활의 시작이 아니라 요식행위로 인식되고 있다"는 혜능 스님의 진단은 그래서 더 우려스럽다. 가장 소중하게 생각해야 할 수계가 형식적 행위로 받아들여져서는 안된다.

지계는 수행자에게 삶 그 자체가 수행이다. 그것이 근간이 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재가

불자들의 신앙과 존경을 받을 수 있을까.

오랜 세월, 계율을 몸으로 실천하고 보여준 스님들이 승가의 본보기가 되어야 한다. 이번 논장에서 스님들께서 참 수행자의 길을 제시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김진석(서울 동작구 사당동)

문화재 보호 우리 자신부터

서울과 충청 지역의 석조문화재 훼손이 심각하다고 한다. 그러나 이는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다. 문화재 보호를 운운하는 목소리가 더이상 새롭지만은 않다는 말이다.

서산 마애삼존불은 백화현상으로 그 모습이 하얗게 변색되고, 관악사 석등은 심하게 기울어져 곧 쓰러질 것 같고... 그러나 정부는 예산부족이라는 말로 모든 우려를 일축하고 정밀진단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 이렇게 무관심하게 방치할 때 우리의 문화재들은 소중한 민족의 얼과 함께 잊혀져갈 것이다.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는 법이다. 유구한 역사, 단일민족 수없이 외치면서 과연 그것을 위해 나는 무엇을 했으며, 과연 당신은 무엇을 했는가.

우선 나무부터 석조문화재에 관심을 소중히 여겨 보호하려 노력하자. 정부차원의 장기적이고 포괄적인 대책과 철저한 과학·기술적 조치, 행정적 관리 등은 그 이후의 문제이다. 신주영(수원 권선구 권선동)

범음 범패

조계종 전통의식연구원에서는 본원 원장인 어장 동주원명스님의 직접 지도하에 전통적인 범음범패 의식을 강의 하오니 조계종 비구, 비구니, 사미, 사미니를 모집하오니 배우고저 하는 스님들은 신청 바랍니다.

- 신청기간: 2004년 8월 25일 ~ 9월 5일까지 (10일간)
- 수강신청대상: 조계종 승려로서 비구, 비구니, 사미, 사미니에 한하며 중법상 결격사유 없는 스님
- 구비서류: · 조계종 승적등본 1통 · 이력서 1통 · 명함판 사진 1매
- 모집인원: 00명
- 전형일시: 2004년 9월 5일 오후 3시
- 모집장소: 서울 동작구 대방동 381-6 흥원사

※ 합격자는 9월 8일 개별 통보함

조계종 전통의식연구원

Tel. (02)822-1990 / Fax. (02)822-1996

보우승가대학 학인모집안내

보우승가대학에서는 조종파적으로 불교인재 양성을 위한 불교의식과 경전용 강의를 하고자 합니다. 강사진은 학제제 명한 교수님들과, 유명 강사님으로 보다 체계적이고 알찬 교육을 통하여 초보자도 여법히 범회법 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 1 강의과목: ▶ 경전 연구반(1년) - 스님 및 교인, 교양대학이상을 수료한 불자 (매주 금요일 오후 4시 ~ 7시 통신 강의도 가능함)
▶ 의식반(1년) - 스님 및 교인, 예비승려, 관심있는 불자
○ 기본과정: 6개월, 월, 화요일 오후 4시 ~ 7시
○ 전문과정: 6개월, 수, 목요일 오후 4시 ~ 7시
- 2 장소: 서울 종로구 창신동 원각사내 (☎ 02-742-0085) 지하철 6호선 창신역하차 7분거리 마을버스 연계됨 (기숙사 60명숙식 가능함. 주차장 완비)
- 3 개교일시: 2004년 9월 9일 오후 3시 추후 수시모집 가능
- 4 모집방법: 서류전형 및 면접 (입학원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반명함판사진 2장, 각반 50명 이내, 선착순접수함)
- 5 원서교부 및 접수처: 본교 사무처(☎ 02-763-5213)

- ※ 경전연구반은 원각경 금강경 화엄경 능엄경 육조단경 선기귀경등 대승경전중 핵심부분을 위주로 강의할 예정임
- ※ 의식반 기본과정에서는 범당예절, 사물타루는 법, 도량식, 종성, 각단예불, 축원, 각단불공등 본과정을 이수하면 누구나 여법히 집전을 할수있도록 쉽게 강의될하며
- ※ 전문과정에서는 49제, 천도제, 방생의식등에 필요한 제반의식과 바라부, 나미부등의 작법등을 강의함

보우승가대학 학장 월봉 합장